

Ⅲ. 주요 산업

1. 광업

가. 정책 동향

- 칠레의 광업 관련법 및 외국인투자법은 각각의 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광업 부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왔음.
- 1994년 환경법 제정, 2004년 정부와 광업 의회(Chilean Mining Council)간 환경보호 협약(Clean Agreement) 서명 등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추가된 사례가 있으나,
- 광물 개발 투자자의 보호라는 큰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비차별 조항임.
- 이러한 칠레의 정책적인 노력 덕분에 1974년부터 2008년 간 칠레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 중 광물부문이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나. 투자 환경

〈광업 관련 법〉

- 칠레는 1970년대부터 외국자본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광물자원 개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왔음.
- 광물부문 개혁은 크게 두 개의 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982년에 제정된 Organic Constitutional Law on Mining Concessions 와 1983년에 제정된 Mining Code임.
 -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의 한 가지로서 인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음.
 - 광물개발 활동 및 투자에 대한 특별한 선행조건이 없으며, 기업별로 합리적인 탐사 개발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음.
 - 광물개발권은 법원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없음.

〈외국인 투자법〉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칠레의 국가 발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모든 부문에 있어서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함.
 - 1974년 처음 제정된 외국인투자법(Decree-Law 600)을 통해 외

국민 투자자 자본금과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및 조세 안정성,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 대우 등을 보장함.

□ 2005년 5%의 광업세 부과 법안 통과

- 그동안 칠레는 광업정책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선호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2005년 4월, 연간 5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모든 광물 생산자에게 영업이익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업 부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이에 Fraser Institute의 광업 부문 정책 잠재력 순위에서 칠레는 전체 64개국 중 2004년 2위에서 2005년 14위로 낮아진 바 있음.
- 그러나 본 법안은 DL600에 의해 고정세율로 납부하고 있는 2004년 12월 이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으며, 칠레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여전히 많은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이고 있음.
 - 2008년 Fraser Institute의 광업 부문 정책 및 광업 잠재력 종합 순위에서 총 68개국 중 3위를 차지함.

다. 광업현황

(1) 개요

□ 광물자원 생산은 칠레경제의 중추적 역할

- 칠레는 세계 최대의 동 매장국이자 수출국으로 요오드, 레늄 및 리

튬, 몰리브덴을 비롯하여 금, 은, 철강, 아연, 망간,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광업이 국가의 중추산업이자 외화획득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음.

- 또한 고품질의 원광석이 지표면 가까이 매장되어 있고, 철도, 항만 등 각종 수송망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개방과 투자보장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일찍부터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
- 최근 수년간 중국의 고성장으로 동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광물자원, 특히 칠레의 중추 광물자원인 동의 국제가격 상승세가 유지되어 칠레의 광물산업이 호황을 지속해 옴.

□ 세계 1위의 동, 리튬, 레늄 등의 매장국

- 칠레는 세계 1위의 동, 리튬, 레늄 매장국임. 칠레의 동매장량은 1억 6000만 톤으로 전세계 동 매장량의 약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튬 및 요오드도 각각 세계 매장량의 73.2%, 6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몰리브덴의 매장량도 1.1백만 톤으로 세계 몰리브덴 매장량의 12.8%를 차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밖에 금, 은, 철강, 아연, 망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동을 제외한 모든 부존자원은 동 채광 작업 중 나오는 광물을 처리한 것으로, 동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광물로는 최근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몰리브덴을 들 수 있음.

〈표 III-1〉 칠레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2008)

광물 자원	단위	칠레	세계	비중(%)	세계순위
동 (copper)	천 톤	160,000	550,000	29.1	1
요오드 (iodine)	천 톤	9,000	15,000	60.0	1
리튬 (lithium)	천 톤	3,000	4,100	73.2	1
몰리브덴 (molybdenum)	천 톤	1,100	8,600	12.8	3
셀레늄 (selenium)	톤	20,000	86,000	23.2	1
레늄 (rhenium)	톤	1,300	2,500	52.0	1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9
(가체매장량 기준)

□ 세계 1위의 동, 리튬, 요오드 생산국

- 칠레는 동, 리튬, 요오드, 레늄의 최대 매장국임과 동시에 생산 면에서도 세계 1위이며, 2008년에는 530만 톤의 동이 생산되어 세계 동 생산의 34.2%를 차지함. 리튬과 요오드도 각각 1만 2천 톤, 1만 6천 톤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각각의 부문에서 세계 생산의 44%, 57%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III-2〉 칠레의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2008)

광물 자원	단위	2006			2007			2008e			세계 순위
		칠레	세계	비중 (%)	칠레	세계	비중 (%)	칠레	세계	비중 (%)	
동	천 톤	5,360	15,210	35.2	5,557	15,649	36.1	5,330	15,591	34.2	1
셀레늄	톤	84	1,540	5.5	75	1,560	4.8	75	1,590	4.7	4
요오드	천 톤	16	25	64.0	15	25	60.0	16	27	57.3	1
리튬	천 톤	8	24	33.3	11	25	44.0	12	27	44.4	1
레늄	톤	19	47	40.4	22	51	43.1	27	57	47.4	1
몰리브덴	천 톤	43	184	23.4	44	205	21.5	45	212	21.2	3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9

□ 광물은 칠레 최대의 수출품목

- 2008년 기준 칠레의 총 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이며 총 상품수출액의 57%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부문임.

- 지난 5년간 동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광물 수출액은 급속한 증가를 보임. 2004년 170억 달러였던 광물 수출액은 2008년 38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며, 총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53%에서 2008년 57%로 상승함.

〈표 III-3〉

칠레의 광물자원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상품수출액	32,520	41,267	58,680	67,666	66,455
광물수출액	16,962	23,191	37,024	43,147	38,191
(비중)	(53.0)	(57.1)	(64.2)	(64.7)	(57.5)

자료 : 칠레중앙은행

(2) 칠레의 동산업

〈매장량 및 생산량〉

□ 세계 1위의 동 매장국이자 생산국

- 칠레의 동 확인매장량은 3억 6천만톤으로 세계 동매장량(10억톤)의 36%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있는 가채매장량의 경우 1억 6000만톤에 달해 세계 최대의 동 매장량을 기록 중임.

- 생산량도 세계 동생산(1,560만톤)의 34%에 해당하는 연간 530만톤 (2008년)을 기록,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세계 동생산량 순위는 칠레에 이어 미국(134만톤), 페루(127만톤), 중국(93만톤) 순임.

〈표 III-4〉

세계 동생산량 순위

(단위 : 천톤)

순위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
1	칠 레	5,412.5	5,320.5	5,360.8	5,557.0	5,330.3
2	미 국	1,160.0	1,140.0	1,197.0	1,190.0	1,339.7
3	페 루	1,035.6	1,009.9	1,048.5	1,190.3	1,267.9
4	중 국	742.2	761.6	872.9	928.0	930.8
5	호 주	854.0	930.0	875.0	871.0	885.0
6	러 시 아	767.0	804.7	779.4	770.0	784.8
7	인도네시아	841.6	1,064.2	816.6	788.9	650.5
8	캐 나 다	562.8	595.4	603.3	596.2	607.0
세계 전체 합계		14,721.1	15,188.3	15,210.4	15,649.9	15,591.0

자료 : COCHILCO

〈수출현황〉

□ 동 : 최대의 수출품목이자 세계 동수출의 절반을 차지

- 칠레의 동 수출액은 국제 동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4~07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하반기 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의 376억 달러 대비 약 12.7% 감소한 328억 달러를 기록함.

- 칠레의 수출 규모는 2008년 세계 동 수출액의 35%에 해당하며, 수출 대상별로 살펴보면 2008년 칠레의 전체 동수출액의 50.2%는 중국, 한국 등 신흥경제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였고, 유럽지역으로는 29.3%, 미주지역으로는 19.5% 각각 수출되었음.
- 중국은 칠레 동 수출액의 21.9%에 해당하는 72억 달러의 동을 수입하여 제1의 수입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표 III-5〉 칠레 동수출 추이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대 상 지 역	2004	2005	2006	2007	2008
아 시 아	7,544	9,867	14,370	20,422	16,477
· 중 국	258	3,741	4,104	8,539	7,206
· 일 본	1,916	2,434	3,923	4,638	3,409
· 한 국	1,408	1,560	2,653	2,835	2,557
유 럽	4,573	5,242	10,744	10,272	9,604
· 이태리	1,049	1,300	2,462	2,898	2,620
· 네덜란드	56	753	2,055	1,824	2,125
미 주	2,587	3,854	7,584	6,801	6,420
· 미 국	799	1,796	3,997	3,161	2,617
· 브라질	797	889	1,763	2,074	2,163
기 타	19	2	12	87	306
총수출액	14,723	18,965	32,710	37,582	32,807
(전년대비 증감률)	(88.4%)	(28.8%)	(72.4%)	(14.9%)	(-12.7%)

자료 : 칠레 중앙은행

□ 국제 동시세 : 2008년 하반기 급락 후 가격 회복 중

- 2003년 이후 공급 부족과 재고 감소로 급등하기 시작하여 급속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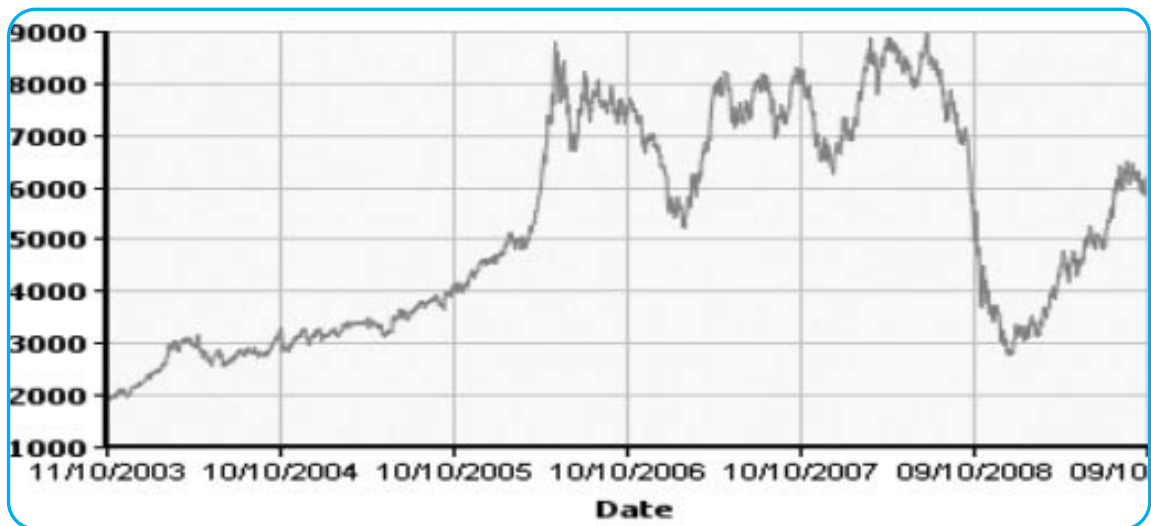
상승세를 보여 왔음. 동가격은 2002년 톤당 1,560달러에서 2007년에는 4.6배가량 상승한 7,131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미국 등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최고 1톤당 8,940달러(2008.7월)에서 2008.12월 60% 이상 급락(1톤당 2,870달러)함.

〈그림 III-1〉

국제 동시세 추이

(단위 : USD/톤)



자료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 그러나 2009년 연초부터 동 가격은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내며, 2009.10.8자 현재 기준 런던금속거래소 동 현물 가격은 톤당 6,241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함.

〈표 III-6〉

2009년 국제 동시세 (월평균 체결액, 현물 기준)

(단위 : USD/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219	3,313	3,747	4,405	4,567	5,012	5,213	6,164	6,195

자료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주요 생산 및 투자기업〉

□ Codelco, 세계 동생산의 1/10 이상 생산

- 칠레 국영동회사인 Codelco는 2008년 기준 총자산 38억 7,600만 달러, 매출액 144억 달러, 연간 동생산량 154만 톤 이상인 세계 최대의 동생산업체임.

〈그림 III-2〉 Codelco 홈페이지 (www.codelco.com)



- Codelco는 4개의 광산지부(Codelco Norte, Salvador, Andina, El Teniente)에서 동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산 El Abra 지분의 49%도 소유하고 있음.
- 2008년 Codelco는 칠레 전체 동생산의 29%에 해당하는 154만 8천톤을 생산하였으나, Codelco 상반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주간의 파업을 진행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41,000톤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고,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으로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수요가 줄어들면서 2008년 Codelco의 동생산은 전년 대비 11만 7천톤 감소함.

〈표 III-7〉

Codelco의 동생산량

(단위 : 톤)

	2005	2006	2007	2008
- Codelco	1,727,981	1,675,916	1,583,253	1,466,450
· Codelco Norte	964,931	940,613	896,308	755,258
· Salvador	77,520	80,615	63,885	42,682
· Andina	248,137	236,356	218,322	219,554
· El Teniente	437,393	418,332	404,738	67,732
- El Abra	103,203	107,122	81,347	81,255
전 체	1,831,185	1,783,038	1,664,600	1,547,705

자료 : Codelco, Annual Report

- Codelco의 생산품목 중 동이 총매출(144억 달러)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몰리브덴도 총매출의 11%를 차지하는 주력광물임.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총매출의 44%, 유럽이 29%, 북미가 18%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한편, Coldeco 이외에도 BHP Billiton(호주계), Antofagasta Minerals SA(칠레계), Anglo American(영국계) 등의 기업들이 칠레 광산에의 지분 참여, 혹은 단독투자 형식으로 동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

〈주요 광산〉

□ Escondida 등 북부 안데스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 1990년 개광한 Escondida 광산은 Antofagasta의 남동쪽 170km

-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동광산임. 본 광산의 매장량은 13억 5,600만 톤, 잔존연수는 27년으로 추정됨.
- 2006년 8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약 5만 5000톤의 생산 손실을 입은 바 있으나, 2006년 세계 동생산의 7.4%, 칠레 동생산의 20.9%에 해당하는 112만 2천 200톤이 생산됨.
- 칠레 제2의 광산인 Chuquicamata은 칠레의 국영 동회사인 Codelco가 소유하고 있으며, 24억 톤(Cu 0.81%)의 동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동을 비롯하여 상당량의 몰리브덴이 생산되고 있는 노천광산임.
- El Teniente는 1904년에 개광하였으며, Codelco 소유로 갱내 동광산으로는 세계최대규모임. 동, 몰리브덴이 생산되고 있으며, 동매장량은 18억 1900만 톤(Cu 1.17%), 잔존연수가 20년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III-8>

칠레의 주요광산

(단위: 천톤)

	광 산	생산량('06)	지분소유회사
1	Escondida	1,122.2	BHP Billiton(57.5%), Rio Tinto(30%) 등
2	Chuquicamata	520.0	Codelco 소유
3	El Teniente	418.3	Codelco 소유
4	Collahuasi	380.2	Anglo American(44%) 등
5	Los Pelambres	324.2	Antofagasta(60%) 등
6	Radomiro Tomic	300.0	Codelco 소유
7	Andina	236.4	Codelco 소유
8	El Abra	218.6	Phelps Dodge(51%), Codelco(49%)

자료 : KOMIS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 농수산업

가. 농업

□ 천혜의 기후·지리 조건, 국가지원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칠레는 좁고 긴 국토의 지형학적 특징, 다양한 토양과 기후 등 농업에 있어 천혜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⁵⁾ 특히, 1년 내내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하고 유럽과 북미와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칠레에서 농업 부문⁶⁾은 GDP의 9.5%, 총 노동인구의 11.6%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다양한 FTA 체결에 힘입어 주력 수출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음.
- 칠레의 농산품 생산량은 적극적인 국가 지원과 농업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대비 30~60%이상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상품의 총수출액(와인 제외)도 2006년 9.8억 달러에서, 2007년 11.7억 달러, 2008년 16.1억 달러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와인의 경우 포도 품종 개량, 품질 및 생산성 개선,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 국제적 수준의 품질 개발에 성공하여 칠레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발전하였고, 2008년 총 수출금액은 14억 달러에 달함.

5) 칠레의 국토 7천 5백만 헥타르 중 사막지대가 33%, 초원 및 관목지가 27%, 산림지는 21%, 농지 6%, 늪지 6%, 적설 및 빙하 지대 6%, 2%가 기타 용지임. 기후는 해안 및 동부 지역은 열대, 중부산맥은 온대이며, 일부 온난 빙하지역인 곳도 있음. (칠레 쪽 파타고니아 빙하지대)

6) 농업관련 제조업 포함

- 칠레 정부는 농업부 산하 기관 및 관련 부처를 통해 농업 생산성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농촌개발프로그램, R&D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농업부문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중임.

〈곡물〉

□ 곡물 생산은 감소 추세

- 주요 생산 작물은 곡물의 경우 밀, 콩, 옥수수, 귀리, 감자 등이며 옥수수와 귀리를 제외하고 1990년 이후 대부분의 곡물 경작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III-9〉

연도별 곡물 경작면적

(단위 : 헥타르)

구 분	1990	2000	2004	2006	2008
밀	466,480	414,000	419,660	231,785	280,644
콩 류	115,460	41,170	27,790	15,495	19,551
옥 수 수	99,590	82,550	134,280	125,589	128,211
귀 리	76,540	89,610	76,680	82,441	101,079
감 자	59,330	63,110	55,620	54,528	45,078
근 대 뿌 리	39,788	46,400	31,410	20,916	12,869
보 리	31,710	15,370	21,500	18,677	18,513
쌀	29,750	28,550	25,030	21,765	23,680
카 놀 라	29,480	22,800	12,130	11,490	25,135
눈 동 이 나 물	13,540	1,800	1,780	3,548	4,355
층 층 이 부 채 꽃	8,270	16,290	25,300	21,148	10,283
총면적(기타포함)	986,305	829,344	834,270	610,232	671,050

자료 : 농업정책조사국 (ODEPA: Agrarian Policies and Studies Bureau)

- 1990년까지만 해도 밀이 총 경작면적의 약 47%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 있는 작물이었으나 공급과잉으로 정부가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경작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타 곡물도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 수입 농산물에 밀려 성장이 급격히 저하되었음.
- 곡물생산량은 1990년대 주요 작물이었던 근대뿌리와 밀은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90년대 80만톤 수준이었던 옥수수 생산량은 2000년대 이후 종자용 옥수수의 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1.3백만톤(2008년)으로 60%이상 증가하였음. 기타 작물은 2000년까지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최근 5년간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Ⅲ-10〉

연도별 곡물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199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옥 수 수	835,723	778,498	1,507,766	1,381,894	1,381,479	1,365,472	1,345,653
밀	1,588,677	1,780,157	1,851,940	1,403,689	1,103,497	1,237,861	1,145,290
근 대 뿌 리	2,498,659	2,882,980	2,597,771	2,199,783	1,612,102	1,208,496	1,042,418
감 자	843,938	1,210,044	1,115,736	1,391,378	831,054	965,940	924,548
귀 리	206,684	344,527	357,352	435,041	341,646	383,759	344,212
쌀	117,115	143,261	116,832	160,315	110,280	121,400	127,311
카 놀 라	57,680	67,371	41,225	47,151	43,399	66,590	78,501
보 리	106,959	65,454	102,417	136,700	87,798	95,869	73,424
콩 류	137,615	65,160	48,579	54,217	23,396	23,689	30,883
층층이부채꽃	14,482	37,019	63,246	70,479	46,617	31,623	12,311
눈동이나물	32,405	3,131	2,793	5,284	7,451	7,607	10,007
담 배	14,678	8,534	9,850	8,349	8,470	6,214	5,626

자료 : 농축산청 (SAG: Agriculture and Livestock Service)

-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FAO)에 따르면 칠레는 2007년 기준 콩콩이부채꽃(lupine) 생산량이 세계 4위, 옥수수 15위, 밀(라이밀) 15위, 귀리 17위, 콩(깍지콩) 25위 등을 기록하고 있음.
- R&D 투자에 의한 품종개량과 재배방법 개선으로 헥타르 당 생산량은 밀 4.1톤, 귀리 3.4톤, 옥수수 10.5톤, 감자 20.5톤, 쌀 5.4톤, 카놀라 3.1톤 수준으로 1990년에 비하여 20~60% 정도 증가함.

〈과일〉

□ 과일 재배 및 생산량 증가

- 칠레는 여름철에는 고온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고, 겨울철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드물어 과일의 당도가 높으며, 재배기간 중 적은 강우량으로 병해충이 적어 농약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과일의 품질이 좋음.
- 칠레의 과일농장은 평균 15헥타르 수준으로 대규모 기업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산부터 포장까지 조직화된 체계로 운영되며, 10헥타르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의 농가들도 선별 및 포장단계에서는 대규모 전문 포장 센터 등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과일의 재배면적은 곡물의 경우와는 달리 증가 추세이며, 재배면적의 증가율로 보면, 포도, 아보카도, 키위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생산량에 있어서는 포도, 사과, 아보카도, 키위, 자두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III-11〉 연도별 주요 과일의 경작면적 및 생산량

(단위 : 천 헥타르, 천 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포도	경작면적	48	48	49	51	51	51
	생산량	1,750	1,985	1,900	2,250	2,300	2,350
사과	경작면적	35	35	36	35	35	35
	생산량	1,150	1,250	1,300	1,400	1,370	1,390
복숭아	경작면적	13	13	13	13	13	13
	생산량	293	304	311	310	295	270
자두	경작면적	14	14	14	14	14	15
	생산량	210	215	233	240	244	n/a
아보카도	경작면적	23	24	24	27	27	27
	생산량	140	140	160	190	220	250
키위	경작면적	7	7	7	7	7	9
	생산량	128	125	145	150	160	170
배	경작면적	9	8	8	7	7	7
	생산량	203	205	210	200	180	150

자료: 경작면적 ODEPA, 생산량 FAO STAT

□ FTA 체결과 엄격한 품질관리 통해 과일 수출 급성장

- 칠레의 과수산업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등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화된 소비자 수요 및 변화하는 해외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씨없는 포도의 개발 등 과일부문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더불어, FTA 체결국의 증대로 해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칠레는 세계 과일 수출시장에서 단일 국가로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출

량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2위의 과일 수출국임.

- 세계 과일 시장 점유율(2008년 수출)⁷⁾ : 중국(19%), 칠레(18%), 미국(13%), EU(12%)
- 2003년 발효된 EU와의 FTA로 유럽 내 무관세 진입이 가능해져 포도, 복숭아, 사과 등 거의 대부분의 과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한국,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과의 FTA 발효로 아시아지역으로의 과일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III-12〉 주요 품목의 연도별 수출 추이

구분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천 톤)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포도	989	1,018	1,256	823	776	836
사과	432	560	657	725	774	770
블루베리	131	165	208	15	20	35
체리	105	127	191	22	26	51
키위	127	145	172	147	160	160
배	78	97	135	120	119	133
아보카도	113	207	113	110	146	84
자두	92	109	110	80	105	88
간호두	46	57	94	5	7	7
복숭아	53	60	74	46	52	62

자료 : 관세청(Servicio de Aduanas)

7) 미국 농업부(USDA) 해외 농업 통계 활용하여 정리

- 2004년 한국의 대칠레 과일 수입 규모는 1천 6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FTA 발효 이후인 2005년에는 74.5% 신장한 2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함. 이후에도 매년 30~50%의 성장률을 보여 2008년 과일 총수입규모는 7천 2백만 달러에 달하였고, 최대 수입 품목인 포도는 한국의 연간 포도 총수입량의 92%에 해당하는 6천 4백만 달러를 기록함.
- 칠레의 과일 수출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8년에는 수출액 3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수출물량은 24억 톤에 달함.
 - 포도는 전체 과일 수출량의 35%, 수출액의 38% 이상을 차지

〈와인용 포도 재배 및 와인 생산〉

□ 양질의 포도 재배로 세계 5위의 와인 수출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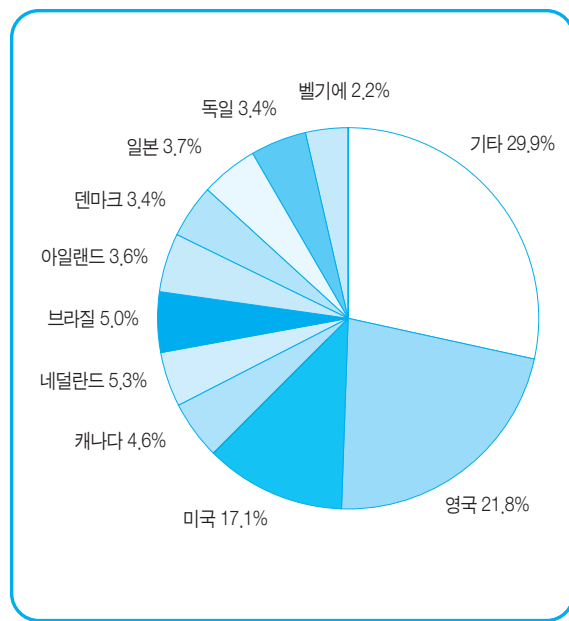
- 칠레는 양질의 포도 재배가 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17세기부터 와인을 일부 수출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서야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중반 이후 포도원 재배면적과 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
- 칠레의 와인 생산용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은 116,793 헥타르로 이 중 76%가 레드와인용 포도(Cabernet Sauvignon, Merlot 등) 재배지이며, 24%는 화이트 와인용 포도(Sauvignon Blanc, Chardonnay 등) 재배지임.

- 현재 칠레에는 전국적으로 139개의 와인 제조업체가 있으며, 주요 3대 기업⁸⁾이 78%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이 중 Concha y Toro는 2009년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텐저블 비즈니스(Intangible Business)가 실시한 기업 브랜드 지명도 설문조사 결과, 와인 브랜드 파워 부문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였음.
- 2008년 와인 수출액은 2003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14억 달러⁸⁾(병 와인 11억 달러 포함)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강한 중남미 와인의 맛을 탈피하고 미국, 유럽인들의 기호에 맞게 맛을 변화시킨 칠레 와인의 세계화 전략의 결과이기도 함.

〈표 Ⅲ-13〉 수출국별 와인 수출액(백만 달러)

국가	2006	2007	2008
영 국	146	212	205
미 국	148	183	193
캐 나 다	48	59	69
네덜란드	38	49	62
브 라 질	36	50	51
아일랜드	38	43	50
덴 마 크	35	41	50
일 본	24	32	42
독 일	37	51	39
벨 기 에	23	27	31
기 타	247	328	366
총 계	824	1,080	1,164

〈그림 Ⅲ-4〉 2008년 국가별 수출 비중(%)



* 병 와인 기준
 자료 : 칠레와인협회(Wines of Chile)

8) 2008년 기업별 자국 시장 점유율 : Concha y Toro(29.7%), Santa Rita(28.7%), San Pedro(20.4%), Tarapaca(2.6%), Santa Carolina(2.0%), 기타(16.6%)

9) 칠레는 세계 제 11위의 와인 생산국이자, 세계 5위의 와인 수출국임

- 2008년 한 해 수출된 와인 중 반 이상이 유럽(51%)으로 수출되었으며, 23%가 북미, 15%가 중남미, 11%가 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됨.
- 국가별 주요 수출국으로는 영국(21.8%), 미국(17.1%), 네덜란드(5.3%), 브라질(5.0%), 캐나다(4.6%) 순이며, 상위 2개국의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함.

〈정부 지원책〉

□ 꾸준한 정책지원 실시

- 농업¹⁰⁾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GDP의 5%대에서 2008년 4%대에 불과하지만, 칠레 정부는 연간 정부지출의 1.3~1.4% 가량을 농수산업 부문에 지출하고 있으며, 동 섹터에 대한 2008년 정부 지출은 1999년 대비 150% 가량 증가함.
- 칠레는 사회 모든 섹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예산 배정시 일관성 있게 비율을 조정, 농수산업에는 지난 10년간 GDP의 0.3%가 배정됨.
-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 : 1,078억 페소(1999년) → 2,696억 페소 (2008년)
- 칠레 정부의 농업 관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관개 프로그램, 토질회

10) 수산업 포함

복 프로그램, 생산성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농촌개발 프로그램, R&D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농업부에서 산하 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직접 예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특히,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 정책 하에 R&D 및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농업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원된 혁신 및 투자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2.7억 달러에 달하였음.
- 2009년에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2008년 대비 30% 늘어난 3,506억 페소로, 상당 부분이 품종 개량 및 생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생산력 강화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임.

□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신규 시장 지속적으로 확보

- 1970년대부터 개방정책을 실시하는 등 자유무역주의를 비교적 빨리 도입했던 칠레는 2002년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며 적극적인 교역 다변화 정책을 실시함.
- EU, 미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과의 FTA 체결은 농산물 수출에 특히 긍정적이었는데, 2002년 이전 동 국가들에 대한 칠레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이 2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 현재 FTA 체결국 대상의 농산품 수출은 98%까지 확장¹¹⁾되었음.

• 이러한 수출 증가에는 ProChile, DIRECON, Fondo de Promoción

de Exportaciones Agropecuarias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컸음.

〈최근 동향〉

□ 세계 경기 침체로 2009년 농산물 수출은 소폭 감소할 전망

- 2009년 상반기 과일 수출금액은 21.3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24.2억 달러 대비 12%이상 감소하였으며, 국제 과일 시세 하락, 칠레 폐소화의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축소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수량 및 금액에 있어 과일 수출의 총 30~40%를 차지하는 포도는 2009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은 2.9% 증가한 반면, 수출금액은 6.7% 감소하였음.
- 와인의 경우는 2009년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및 총수출액은 상승하였지만, 국제 가격 하락으로 리터 당 수입은 전년대비 10%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¹²⁾
 - 2009년 6월까지 와인의 연누적 수출량은 3억 2백만 리터, 수출금액은 6.1억 달러였던 반면, 2008년 동기의 누적 수출량은 2억 7천만 리터, 수출금액은 6억 2천만 달러였음.
 - 국가별로도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량은 늘었지만, 총 수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11) DIRECON, 2008년 3월 식품농수산업 보고서

12) 칠레와인협회 회장 2009.10.15자 발언 및 협회 통계자료 참고

* 영국 : 수출 금액 -12.7%, 수출량 +12.5% (2009년 1~8월, 전년동기 대비)

* 캐나다 : 수출 금액 -8.9%, 수출량 +5.5% (2009년 1~8월, 전년동기 대비)

□ 농업 생산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속될 듯

- 칠레 정부는 농업 강국으로의 성장을 전략적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품종 개량, 농업 기술 교육, 농작 기계 수입 등 생산성 확대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현재 논의중인 2010년 예산안 초안에는 농업부문의 생산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으로 1,714억 페소를 배정하였는데, 이는 농산업 전체에 책정된 3,649억 페소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임.
- 또한, 수출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농산품에 대한 품종 개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등에 계속 투자하는 등 기존의 수출 진흥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자유무역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2010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시세 회복과 더불어 농업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주요 FTA 체결국 : 터키(2009년), 중국(서비스 부문)(2008년)

*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국 :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투자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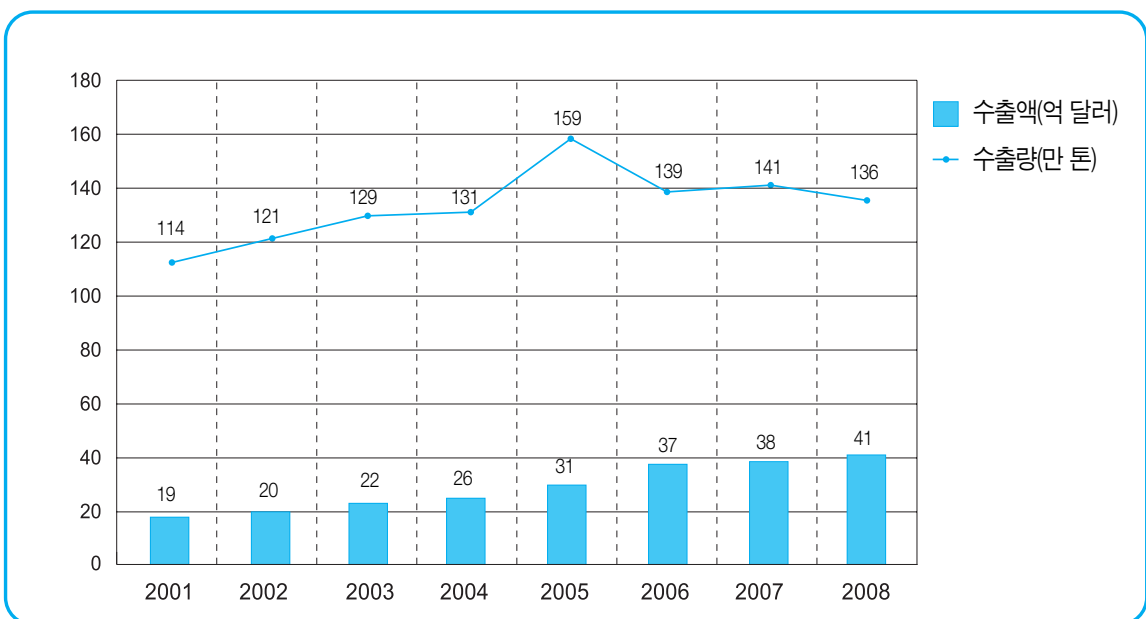
나. 수산업

〈산업 개요 및 현황〉

□ 어류수출액 꾸준히 확대

- 칠레는 페루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제2위의 수산업국으로 어획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국가임. 지형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어획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어분 등 수산물 가공처리업도 발달해 있음.
- 칠레의 어류 수출액은 2002년~2006년간 매년 14~19%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2006년부터 어획량 감소와 함께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수출량 38.2억 달러에 전년대비 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수출액 41억 달러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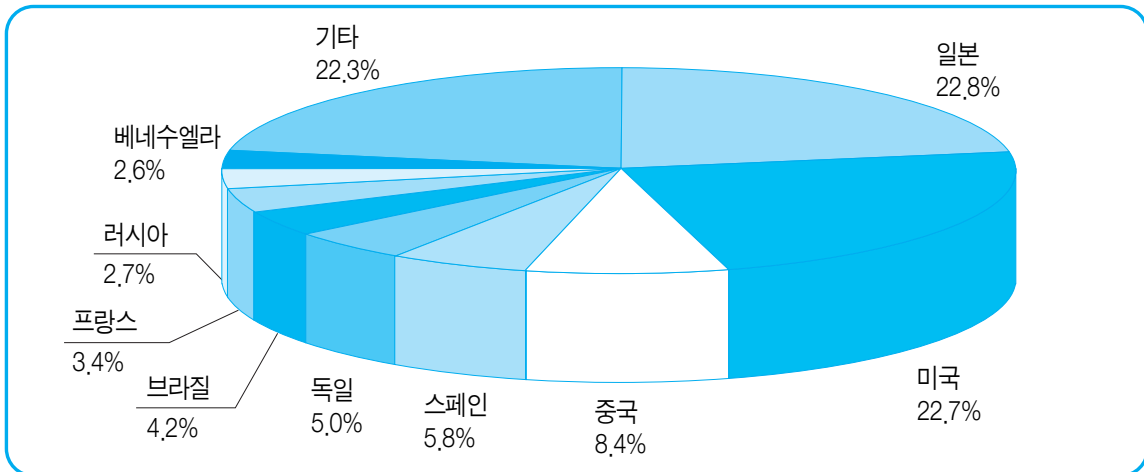
〈그림 Ⅲ-5〉 칠레의 연도별 어류 수출액



- 수출 대상국별로는 일본(22.8%), 미국(22.7%), 중국(8.4%) 순으로 상위 3개국에 대한 수출이 총 수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I-6〉 2008년 칠레의 국가별 어류 수출비중

(단위: %)



자료: 칠레수산업협회

□ 연어수출, 세계 2위

- 1980년 중반부터 본격화 된 연어 양식업은 생산량에 있어 1986~1995년 중 연평균 77%, 2000~01년 중에는 40%의 성장을 이루어 내며 세계 2위 연어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힘.
- 그러나 이러한 연어생산의 증대는 국제연어가격의 폭락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칠레의 2001년 연어 수출액은 9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 하락함.
- 이후 칠레는 연어의 생산 감소를 통해 국제 연어가격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2003년 칠레의 연어 수출액은 11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함.

- 이후 연어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2003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18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칠레의 주요 수출 상품 중 하나로 성장함.

〈표 III-14〉 칠레의 어종별 수출순위

(단위: 천 달러)

	어 종	2007	2008
1	대서양 연어	1,434,109	1,497,010
2	송어	523,443	594,010
3	유영어	501,485	511,488
4	태평양 연어	280,500	298,849
5	다랑어	205,237	152,205
6	홍합	85,849	131,882
7	남반부 대구	93,751	97,392
8	연어 기타	81,635	85,285
9	성게	61,571	77,162
	기타	559,310	665,404
	합계	3,826,890	4,110,687

자료: 칠레수산업협회

□ 2009년 상반기 수출량 소폭 증가

- 칠레 수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6월 칠레의 어류 수출량은 832,5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 증가율을 나타냄.

- 상품 가공 형태로는 냉동 수산물이 전체의 45.4%, 어분(fish meal)이 33.6%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며, 어유, 냉장 제품, 건조 해초, 통조림 등이 뒤를 이었음.

- 어류 종류로는 대서양 연어가 수출의 30%를 차지했고, 무지개송어와 원양어류, 태평양 연어 등이 그 뒤를 이어 많이 수출되었음.
-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중 기타 농산물과 같이 전반적인 국제 시세 하락(어분 제외)으로, 수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산물 수출의 평균가는 킬로 당 2.4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9% 하락한 수치임.
- 최대 수출 상품인 칠레 양식 연어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염병 확산 문제와 최근에 불거진 항생제 과다 처방 문제 등으로 당분간 수출 확장세가 어려울 전망이다.
- 칠레 경제부가 2009년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어 양식에 사용된 항생제 양은 32만kg으로, 세계 1위의 연어 생산국인 노르웨이에 비해 300%이상임.

3. 정보통신산업

가. 정책 동향

□ 적극적인 ICT 정책 추진

- 칠레는 1990년대에 통신업자유화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 저변을 넓혀 갔으며, 이에 따라 통신산업은 자유경쟁 및 혁신 강화를 기본으로 중남미 지역 내 가장 정부 개입이 적고 산업 모든 분야에 완전 경쟁이 있는 산업 분야임.

- 2000년대 초반 전국민 PC 갖기 운동을 통해 PC 보급에 힘썼으며, 공교육 기관의 PC 보급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 또한, PC 보급을 늘리기 위해 컴퓨터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 신규 컴퓨터뿐만 아니라 중고 컴퓨터 수입에 대해서도 무관세 적용¹³⁾
- 특히, 휴대폰 전화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 및 인터넷광역망 보급률은 중남미 최고 수준이며, 신기술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임.
 - 칠레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WiMAX, IPTV 등의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이며,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인 Fttx 인프라를 일부 구축하는 등, 중남미 지역의 기술 혁신에 시범국가의 역할을 도맡아 함.
 - 칠레 정부는 또한 중남미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LTE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09년 말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추진할 계획임.

□ 고급 인력 육성 노력

- 1995년에 칠레 정부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업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시작함. 1990년에는 2.3%에 불과했던 교육에 대한 공공 부문 지출은 2000년에는 4.2%로 증가하였으며, 사적 부문에서의 투자까지 합치면 교육 분야의 투자는 GDP의 6.1% 수준에까지 이룸.
 -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UN 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칠

13) 일반적으로 중고 수입품의 관세율은 16.5%임

레의 평균 학교교육 기간은 10.4년으로 남미지역에서 가장 길며, 대학입학연령 인구의 32%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음. 이들 중 28%는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기술교육을 받고 있어 고급 IT 인력이 풍부함.

나. 투자 환경

〈ICT 관련 법〉

□ 통신법 211조

- 1973년 제정된 통신법 제211조는 자유경쟁규칙을 표방하는 한편, 시장 감시기구인 국립경제감독원(National Economic Prosecutor)을 설립하여 반독점위원회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2003년 11월에 제정된 법19911호는 반독점위원회를 대신할 자유경쟁보호를 위한 법정(Tribunal for the Defence of Free Competition)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 1982년 일반통신법

- 1982년 정부는 일반통신법 제정을 통해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경쟁 개념을 도입함. 정부 지분이 많던 Telefonica에 대한 지분은 85년부터 90년까지 계속 매각하여 현재 0.1% 밖에 남지 않음.

〈외국인 투자관련〉

- 내국인 대우를 받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및 배당금 본국송환에 제한이 없으며, 1999년도 이전 투자자 제한 조건이었던 1년 거주 조건도 폐지됨.
- 2009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이자, 전세계적으로는 28위의 자리를 차지함. 또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dex에서도 칠레는 181개국 중 40위를 기록함.

다. 개관 및 시장 동향

〈산업 개관〉

□ 중남미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및 성장률 보유

- 칠레는 중남미 최고의 IT 및 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중남미 역내 인터넷광역망 보급률 1위(9.4%), 휴대폰 보급률 3위(88.3%) (이상 2008년 기준), E-readiness 국가 순위(2009년)¹⁴⁾ 32위 등을 기록함.
 - 전통적인 유선통신 보급률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광랜 등 고급 IT 기술의 도입 정도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됨.

14) EIU는 매년 주요 70개국을 대상으로 IT 발전 수준을 수치화하여 국가 순위를 발표. 칠레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중남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가 그 뒤를 이어 40위를 기록하였음

〈표 III-15〉 중남미 주요국 정보통신 보급률 비교(2008년)

종 류 국 가	유선 전화		휴대폰		광랜 가입자수		인터넷 사용자수	
	가입자수 (백 만명)	보급률 (%)	가입자수 (백 만명)	보급률 (%)	가입자수 (천 명)	보급률 (%)	가입자수 (백 만명)	보급률 (%)
브 라 질	40.45	21.0	152.44	78.9	10,197	5.3	50.1	26.0
멕 시 코	20.54	19.2	78.46	74.1	6,900	6.5	24.7	24.0
아르헨티나	9.89	24.9	43.82	110.3	3,444	8.7	20.0	50.3
콜롬비아	7.91	16.5	41.36	85.7	1,982	4.1	17.0	35.4
베네수엘라	5.9	21.2	28.21	101.0	1,277	4.4	6.7	24.2
칠 레	3.45	20.5	14.80	88.3	1,574	9.4	6.0	36.0
페 루	2.81	9.7	18.45	63.3	742	2.5	9.4	32.4

자료 : EIU Viewswire(2009), Paul Budde Communications(2009) 에 의거 작성

〈유·무선 통신시장 동향〉

- 칠레 통신시장은 1988년 독점 통신 공기업인 Compania de Telecomunicaciones de Chile(CTC)의 민영화를 기점으로 발전하였으며, 독과점 방지 조항, 정부 개입 배제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통신부문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경쟁을 위한 시장기반 형성에 앞장섰다는 것이 특징임.
- 수년간의 경제호황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시장 내 경쟁적인 가격 인하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칠레의 통신시장은 유무선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2008년간 산업에 대한 투자가 90%이상 증가하였음.
 - 다만, 통신 보급률 확대와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유무선 통신의 매

출 증가율은 최근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표 III-16〉 산업 관련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억 달러)	957	1,183	1,468	1,639	1,695
인구당 GDP (달러)	5,943	7,269	8,931	9,873	10,108
총 가구수 (1,000 가구)	4,317	4,403	4,488	4,571	4,651
연소득 5,000~10,000달러 미만 가구 비율 (%)	28.6	28.4	28.1	27.8	27.3
연소득 10,000~50,000달러 미만 가구 비율 (%)	33.2	36.8	39.5	41.5	44.0
연소득 50,000달러 이상인 가구 비율 (%)	2.8	3.5	4.0	4.4	5.1
통신시장 투자 규모 (억 달러)	5.4	7.5	8.8	9.8	10.5
통신시장 투자 연성장률 (%)	55.3	38.7	18.0	10.7	6.9
유선 통신 매출 연성장률 (%)	1.2	2.7	0.5	-0.9	0.3
무선 통신 매출 연성장률 (%)	16.5	12.0	14.9	5.2	-2.2

자료 : EIU Viewswire(2009)에 의거 작성

□ 무선전화, 유선전화 보급률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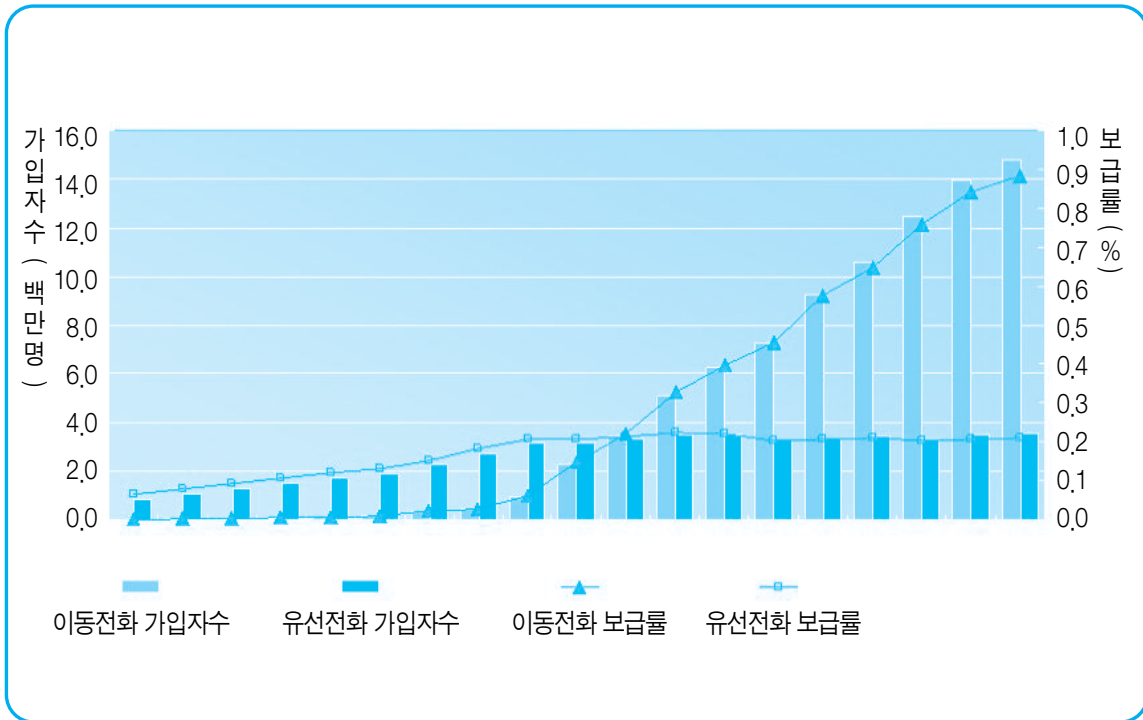
- 2008년 말 기준 칠레의 유선전화 가입자수는 345만 명으로 보급률이 20.5% 수준에 그친 반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1,480만 명으로 88.3%의 보급률을 기록함.¹⁵⁾

- 유선전화 보급률은 2001년 22.3%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매년 소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무선전화 가입자 증가율은

15)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2008년 연간보고서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중남미(카리브 포함) 지역의 평균 유선전화 보급률은 21.7%로, 가장 높은 국가는 버뮤다(89.5%),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티(1.1%)이며, 칠레는 34개국 중 15위임

2001년~ 2008년간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이룩하는 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III-7〉 유·무선 전화 가입자수와 보급률 비교



자료: EIU Viewswire(2009) 에 의거 작성

□ 통신비용은 중남미 국가 중 낮은 수준

- 칠레는 산업규제 완화 및 업계의 경쟁심화로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통신비용이 저렴한 편임.

- 2007년 기준 유선전화선의 월 평균 기본요금은 16.03 달러이며, 이는 칠레의 인구 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4.2%에 해당하여 멕시코, 브라질 등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7〉 주요 중남미 국가의 통신 요금 비교표

(단위 : US\$, %)

구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유선전화 통화료	0.105('07)	0.056('07)	0.029('07)	0.466('07)
유선전화 월기본료 (가처분소득대비)	16.03('07) (4.2%)	21.00('07) (8.5%)	5.15('07) (2.6%)	19.04('07) (5.0%)
이동전화 통화료	1.77('05)	1.76('06)	0.39('06)	0.625('06)

자료 : EIU Viewswire(2009)

□ 높은 이동통신 가입률로 고급 사양 핸드폰 인기

- 칠레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중남미 최고 수준으로 2000년에 이미 유선 보급률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가입자수 기준으로 유선 보급률의 4.2배를 기록 중임.
 - 2008말 이동통신 보급률은 88.3%를 달성했으며, 2009년에 처음으로 90%대에 진입 후, 2013년경에는 보급률이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동통신 수단의 빠른 보급과 함께 지난 몇 년간 경기호황이 가져온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칠레의 휴대폰 시장에서는 최고급 사양이 인기를 얻고 있음.
 - 노키아, 삼성, LG, 소니, 에릭슨 등 세계 굴지의 휴대폰 브랜드가 이미 칠레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2008년 Apple社의 I-Phone 과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이 가능한 다기능 휴대폰의 인기가 높았음.

□ 3세대 이동통신(3G) 사업권 입찰 예정

- 2006년 칠레 통신청은 90MHz 스펙트럼의 3G 사업권의 입찰을 2007년 12월경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당초 통신청은 신규 사업자에 20~30MHz, 기존 사업자에 50~10MHz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기관 간 입장차이¹⁶⁾로 인해 2008년 중순으로 한차례 미뤄졌던 3G 사업권 입찰을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함.
- 시장 내 독과점을 배제하려는 칠레 산업 법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현재 동 분야 진출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으로는 케이블 TV 업계의 VTR社와 유선전화 회사인 Telsur가 있음.
- 2008년 9월 현재 칠레의 이동통신 기업은 Movistar, Entel PCS, Claro, Nextel Chile 등 4개 이며, 주로 GSM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됨.

16) 관련 기업들은 물론, 정부기관 간(Subtel, TDLC, 그리고 FNE-National Economic Prosecutor) 입장 차이가 있음.

- FNE의 주장 : 60MHz로 제한

- TDLC의 주장 : 기존 사업자도 90MHz 입찰에 참여 가능하나,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눠서 입찰 실시해야 하며, 입찰 전 휴대폰번호이동성 제도(Mobile Number Portability) 도입

- Subtel의 주장 : 입찰 단위 구분 및 MNP 도입 등은 Subtel만의 고유 권한

〈표 III-18〉 이동통신 기업과 통신 시스템

기업명	기술 시스템	서비스 개시	가입자 수	전년대비
Movistar	GSM 1900	2003.4월	6,401,000	23.1%
	US TDMA800/1900	1997.2월	228,000	-73.2%
	WCDMA 1900	1999.12월	73,000	n/a
ENTEL PCS	GSM 1900	1998.3월	5,751,000	6.1%
	WCDMA 1900	2007.11월	100,000	n/a
Claro	CDMA 1900	1998.9월	752,000	-46.6%
	GSM 1900	2006.8월	2,021,000	75.3%
	WCDMA	2007.11월	14,000	n/a
Nextel Chile	iDEN	2006.12월	21,000	153.3%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2009)

〈인터넷 시장 동향〉

□ 인터넷 시장의 꾸준한 성장 전망

- 칠레의 인터넷 시장은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여, 2008년 칠레의 인터넷 보급률은 36.0%까지 증가하며 중남미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또한 높은 소득수준 및 개방된 시장에 힘입어 2000년 처음 도입된 초고속 인터넷의 2008년 보급률은 전체 인구당 29.4%, 가구당 8.6%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에 이어 2위 수준임.

〈표 III-19〉 초고속 인터넷의 국가별 보급률

(단위: 천명, %)

	국 가	2007	2008	전체인구 보급률	가구당 보급률
1	아르헨티나	2,557,000	3,444,000	31.4%	8.7%
2	칠 레	1,312,000	1,447,000	29.4%	8.6%
3	멕 시 코	4,545,000	6,900,000	21.8%	6.5%
4	브 라 질	7,718,000	10,197,000	18.0%	5.3%
5	베네수엘라	858,000	1,277,000	17.4%	4.4%
6	콜롬비아	1,207,000	1,982,000	18.8%	4.1%
7	페 루	589,000	742,000	10.5%	2.5%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s(2009)

- 한편, 인터넷 비용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연 663달러이며, VoIP 접속료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어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시장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인터넷은 모뎀에서 DSL로의 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2008년 12월말 현재 인터넷 사용자수는 총 인구의 36%에 해당되는 6백만 명으로 추산됨.

〈표 III-20〉 주요 중남미 국가의 통신 요금 비교표

(단위 : US\$, %)

구 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DSL 접속료	0.0('06)	0.0('06)	60.0('06)	319.9('06)
DSL 장비 연대여료	663.6('06)	1,990.8('06)	1,054('06)	1,090.8('06)
VoIP 접속료	0.063('07)	0.162('07)	0.096('07)	0.297('07)
개인용 PC 가격 평균 (가처분소득대비)	2,599('08) (586.8%)	1,863('08) (635.7%)	1,825('08) (798.0%)	1,843('08) (460.1%)

자료: EIU Viewswire(2009) 활용 필자 작성

□ 컴퓨터 보급률 증가가 인터넷 확산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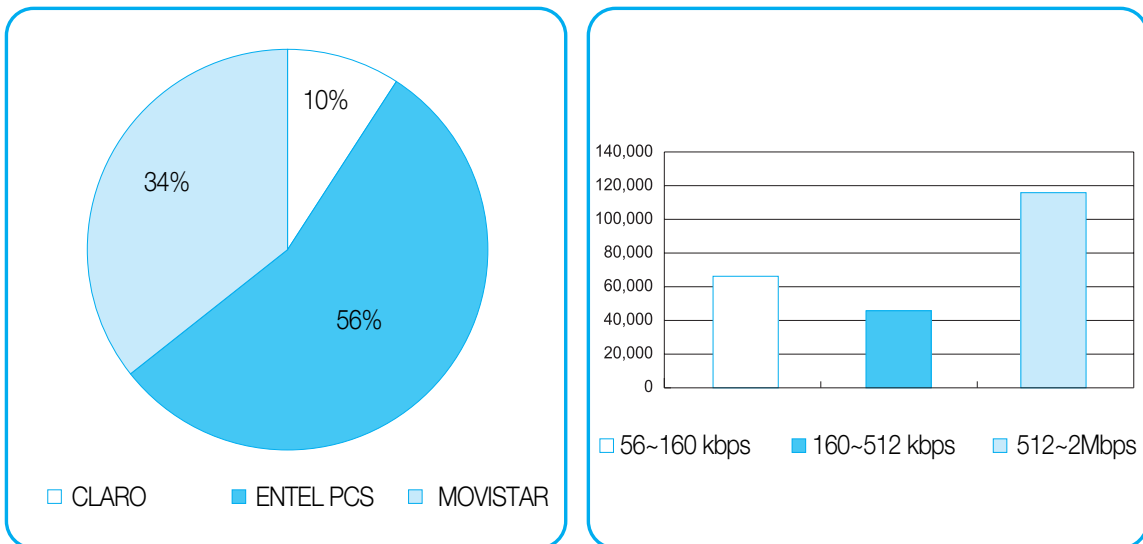
- 칠레의 1인당 컴퓨터 보급률(2008년)은 34.1%로 브라질(32.7%), 아르헨티나(29.7%), 멕시코 (20.1%) 보다 높은 수준임.
- 한편, 2008년 현재 모니터와 키보드를 포함한 512MB 데스크탑의 평균가는 2,599 달러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대비로 비교할 경우 남미 국가 중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최저 사양의 데스크탑은 400 달러부터 구입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컴퓨터는 분할 납부 제도의 발달과 수입 관세 면제로 인한 비용 인하로 판매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 PC 브랜드의 인기가 높음.
- 칠레 정부는 10명의 학생당 1대의 노트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학교와 소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과 2010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로 보급률은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와 EIU Pyramid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경 칠레의 컴퓨터 보급률은 53.8%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모바일 인터넷 접속 급증

- 칠레 이동통신협회(Altelmo)가 최근 발표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전년대비 315% 증가하였음.

- Entel PCS, Movistar와 Claro의 보고에 따르면, M-인터넷 접속 회수는 2007년에 56,156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233,01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Altelmo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향후 몇 년간 큰 폭으로 신장하여 2011년 M-인터넷 접속 수는 1.4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림 III-8〉 Mobile 인터넷 점유율 〈그림 III-9〉 Mobile 인터넷 접속 속도 (2008.12월)



자료 : Subtel(칠레 통신청)

〈케이블 등 시장 동향〉

□ 케이블 TV 패키지 상품 및 위성 TV 서비스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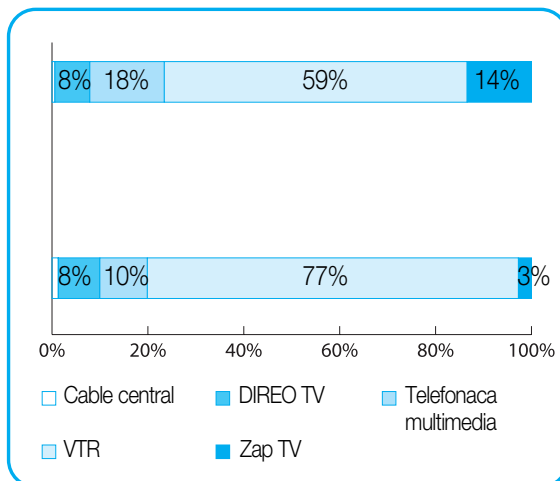
- 케이블 TV는 인터넷, 전화 등과의 패키지 상품을 통한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분야임. 또한 케이블 TV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위성 TV 서비스도 가입자수

가 최근 수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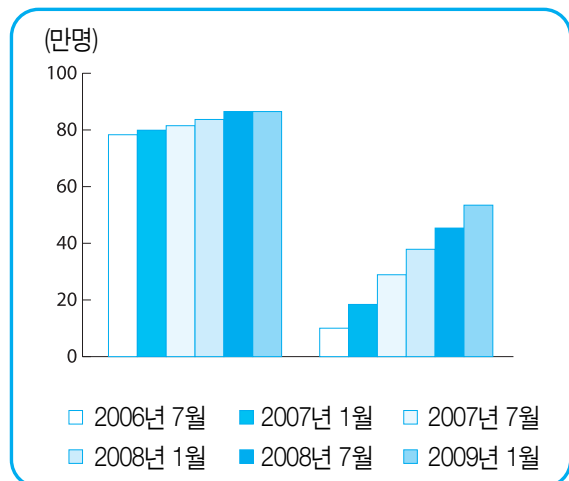
• 위성 TV 가입자수 : 10만 명('06.7월) → 57만 명('09.1월)¹⁷⁾

- TV 시장점유율 1위인 VTR社는 2007년 77%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신규 진출기업인 Telefonica Multimedia社, Zap TV社 등의 선전으로 2009년 1월 현재 시장점유율이 59%로 낮아진 상황임.

〈그림 III-10〉TV 시장 점유율



〈그림 III-11〉케이블 및 위성시장 가입자수



자료 : Subtel(칠레 통신청) 활용 필자 작성

□ 주파수역 제한법 입법 시 경쟁 심화 전망

- 2009년 1월 칠레 정부 입법부에서 제시한 주파수역(spectrum) 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라디오, TV,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역이 제한되므로, 시장 독과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크고 작은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7) 동기간 케이블 TV가입자수는 케이블 TV 81만 명('06.7월) → 89만 명('09.1월)임

- 칠레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여러 통신 분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가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라. 향후 시장 전망

□ 이동통신 중심의 성장세 지속될 듯

- 2008년 미국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과 M-인터넷, M-TV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도입에 성공하여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경기 침체로 선불제 휴대폰이 시장에서 다시 각광받고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의 선전 덕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2009년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총매출액이 감소될 전망이나,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Telefonica Chile CTC¹⁸⁾는 2009년 통신시장의 모든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명함. (2009년 6월, 로이터 통신)

□ 2009년에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전망

18) Telefonica Chile CTC의 2009년 1사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하였으나, DSL과 케이블 TV의 매출 호조로 유선통신 부문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 (2009년 4월, Telegeography)

- DSL과 WiMAX 등 유무선 인터넷망 설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3G 사업권 입찰 등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Telefonica Chile, VTR社, Entel 등 주요 통신기업들은 올해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 Telefonica Chile는 전년과 같은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부분 하이브리드 광랜망 설비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VTR은 DSL망 설비 투자와 3G 휴대폰 사업권 등에 1.5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Entel사 역시 2009년 4.5억~5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농촌 지역에 대한 통신부문 투자 확대 기대

- 칠레의 높은 경제성장과 통신 산업의 부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빈부격차가 상존하고 있음.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통신망 접근성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편임.
- 정부는 도심과 농촌지역간 정보격차(Information Disparity)를 줄이기 위해,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통신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칠레 정부는 Movistar社와 통신교량(Bridges of Communication) 설치 프로젝트(PPP형태)를 추진하여 2006년~2010년 4년간 농촌 지역에 8개의 통신 안테나를 보급할 예정이며, 칠레 남부 Los Rios주 인터넷 설치 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임.

4. 전력산업

〈주요 제도〉

□ 산업 관련 주요 제도

- 1982년의 에너지법(Energy Act) : 영국식 전력 민영화 모델에 따라 민영화 절차를 추진하였고, 당시 국영이었던 Endesa를 6개의 발전회사, 6개의 배전회사 및 2개의 소규모 발전 회사 등 14개의 회사로 나눔.
 - 1982년 완전한 민영화 정책과 함께 시작된 전력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로 1982년~2004년간 SIC 전력 시스템은 2,713MW에서 6,991MW로 전력생산 능력이 향상되었고, SING 전력 시스템은 동기간 428MW에서 3,634MW로 크게 성장함.
- 에너지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전력 생산이 큰 차질을 겪으며 1998년~1999년 대규모 정전 사태가 계속되었을 때 처음 시도되었고, 가장 중요한 보완법으로는 2004년 도입된 Short Law I와 2005년의 Short Law II를 들 수 있음.

- 위의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 관련 세제 혜택 제공, 빈곤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됨.

〈산업 개요〉

□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크게 의존

- 칠레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8년 석유 수입액은 총 상품 수입액의 26.5%에 달하는 15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칠레의 가장 큰 수입 품목임.
- 2008년 칠레의 석유소비량은 277천 b/d로 이중 95%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였으며, 천연가스 자급률은 50% 미만임.
- 기존의 수력을 대체하는 방편으로 천연가스의 수입량을 대폭 늘려왔으나, 아르헨티나의 2004년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회사들과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표 III-21〉 칠레의 연도별 주요 에너지 지표

(단위: 천 b/d, bcf)

		2004	2005	2006	2007	2008
석유 (천 b/d)	국내소비량	244.6	259.9	266.0	272.0	277.0
	국내생산량	15.8	15.4	13.6	11.6	11.2
	순수입량	228.9	244.5	252.4	260.4	266.0
천연가스 (bcf)	국내소비량	292.8	301.6	263.8	148.3	91.8
	국내생산량	38.5	72.0	67.5	63.6	n/a
	순수입량	254.3	229.5	196.4	84.8	n/a

* 천 b/d(barrel per day) : 천 배럴/일, bcf(billion cubic feet) : 10억 입방미터
 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nnual, EIA

□ 중남미 최초의 전력 부문 민영화 국가

- 칠레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시작하여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 전력산업의 모든 부문(발전, 송전, 배전)을 민영화하였으며, 규제, 감독, 계획만을 정부가 담당함.
- 대부분의 전력 관련 법규 및 규제는 국가에너지기구(Comision Nacional de Energia : CNE)와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전력 및 발전연료 감독원(Superintendente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이 담당

〈부분별 산업 현황〉

□ 전력산업 구성¹⁹⁾

- 칠레의 전력산업은 긴 국토를 네 지역으로 구분한 4개 전력공급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1개의 발전회사, 5개의 송전회사 및 36개의 배전회사가 운영 중임.
- 4개 전력공급시스템인 SING, SIC, Aysen, Magallanes 중 중부지역의 SIC과 북부지역의 SING에서 2008년 칠레 전체 전력 공급량의 99% 이상을 제공하였으며, 남부지역의 Aysen과 Magallanes의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1%가 공급됨.

19) 국립통계청 에너지 산업 연보

① SING (Sistema Interconectado del Norte Grande)

- 1987년 형성되어 칠레 전 국토의 24.5%(185,142km²)에 해당하는 아리카, 타라파카, 안토파가스타 등의 지역을 아우르고 있음.
- 2008년 칠레 전체 공급전력량의 27.4%에 해당하는 14,373GWh가 생산되었으며, 이중 90% 이상이 최북단 광산지역에 공급되고 있음. 6개 발전회사와 3개의 배전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99.6% 화력방식에 의해 생산되며, 나머지 0.4%인 13MW는 수력에 의해 생산됨.

② SIC (Sistema Interconectado Central)

- Talta시와 Chiloe 섬 사이의 중남부 지방에 칠레 전체전력공급량의 71.4%에 해당하는 40,174GWh의 전력을 공급하는 칠레 최대 전력공급시스템으로 13개 발전회사와 20개의 배전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 SING이 광업중심의 기업 수요가 많은 반면, SIC의 주요고객은 일반 가구층이며 산티아고시를 중심으로 칠레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본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2006년까지는 전력공급의 약 70%가 수력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등 주요 에너지원 면에서도 SING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발전 방식은 수력 58%, 화력 42%임.

〈표 III-22〉 전력공급시스템별 발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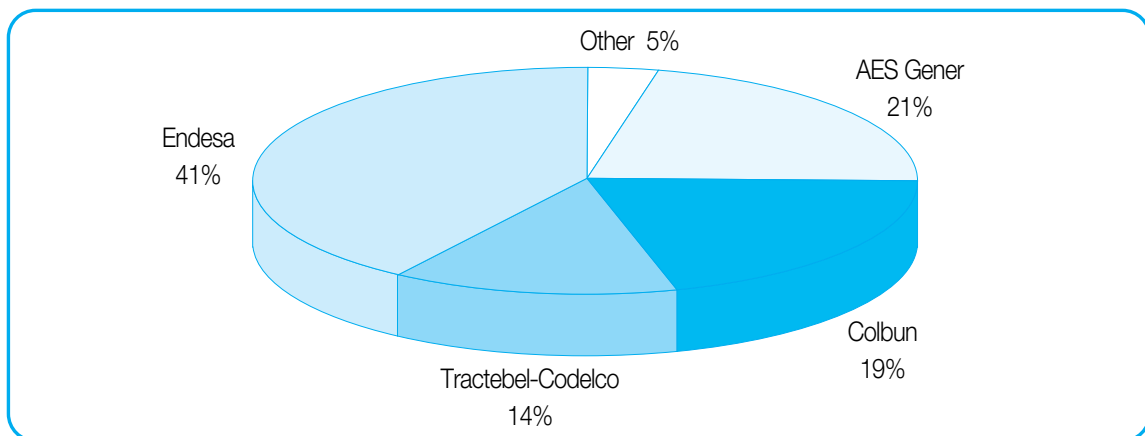
	SING	SIC	Aysen	Magallanes
2005	11,425	34,472	116	207
2006	11,525	39,409	129	222
2007	13,068	40,696	133	237
2008	14,373	40,174	133	246

자료: CNE

□ 발전 부문은 4개 주요 회사가 과점

- Endesa, AES Gener, Colbun, Tractebel-Codelco 등 4개 주요 발전회사가 칠레 전체 전력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칠레 전력시장 점유율 1위(41%)인 칠레 Endesa는 스페인 Endesa의 칠레 현지 자회사로 22개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III-12〉 발전회사의 시장점유율 현황(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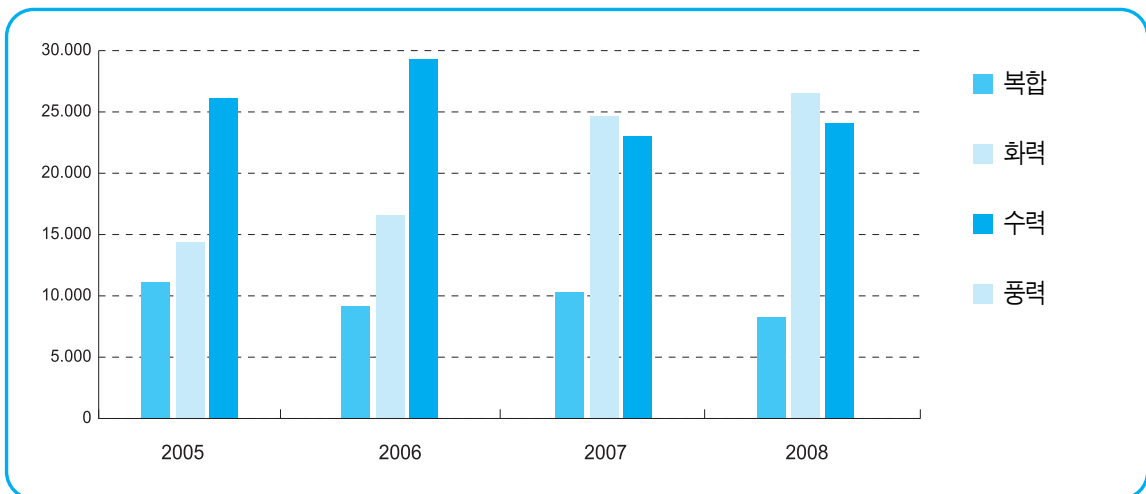
자료 :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by Lead Arranger, ('07. 4.)

- 칠레의 주요 발전 에너지원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스템이며, 2006년까지 수력 발전 시스템이 대세를 이루었음. 그러

나 2007년 가뭄으로 화력 발전이 큰 폭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발전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 2008년에도 화력 시스템을 통한 발전량은 26,654GWh로 24,010GWh인 수력발전량 보다 높았음.

〈그림 III-13〉 시스템별 발전에너지원 (2005~2008)

(단위 : GWh)



자료 : CNE, 2008

□ 배전·송전 부문

- 배전부문에는 36개의 회사들이 운영중이며, 주요 기업으로는 Enersis, North American PP&L, Sempra-PSEG 그룹과, Del Real, Claro, Hornauer and Perez 등의 그룹 소속 기업들을 들 수 있음.
- 송전부문은 5개의 업체가 있는데, SIC 전력시스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Transelec이며, 동 기업은 SIC 시스템 하 배전망을 모두 통제하고 있음. 타 전력시스템 하에서는 주요 발전사 또는 주요 전력 수요자들이 송전망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전력수급 현황〉

- 2007년 최대 전력수요는 8,045MW로 발전용량 12,837MW에 못 미치나, 천연가스 공급 축소 및 가뭄에 따른 발전량 부족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추가적 발전소 건설, 에너지원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표 III-23〉

칠레의 최대 전력수요량

(단위 : MW)

	SING	SIC	Aysen	Magallanes
1998	1,020.9	3,991.4	12.5	28.5
1999	1,093.6	4,185.5	13.4	28.2
2000	1,153.5	4,516.0	13.8	29.8
2001	1,220.8	4,694.0	13.9	29.6
2002	1,360.3	4,878.0	15.2	30.0
2003	1,416.0	5,162.0	16.5	30.4
2004	1,566.6	5,430.8	17.6	32.7
2005	1,566.2	5,763.9	19.4	40.6
2006	1,676.0	6,059.0	20.7	42.9
2007	1,665.4	6,313.4	20.9	45.2

자료 : CNE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 다변화 정책 추진

- 1990년대 중반까지 전력생산은 수력발전에 의존하여 왔으나, 1996~99년 중의 가뭄으로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지고, 대규모 댐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어, 수력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화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화력발전소 및 아르헨티나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여, 천연가

스의 발전연료 비중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1996년 8%에 불과하였던 천연가스 발전비율이 2004년에는 36%까지 증가하게 됨.

- 칠레 정부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력발전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04년 아르헨티나가 천연가스의 공급 축소정책을 시행하게 되자 발전연료 다변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칠레 정부는 또한 2008년 전력공급선 다양화 및 미래 전력생산자원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한 Ley Tokman을 제정하여, 2010년 실행에 들어갈 예정임. 동 법안의 요지는 200M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연간 전력생산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전력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임.

【참고 Ⅲ-1】 2004년 아르헨티나의 가스 공급 축소사태

□ 아르헨티나는 21조 평방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에 이은 남미 세 번째의 천연가스 보유국임.

- 2001년 말 외채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2년 천연 가스에 대한 판매가격을 달러 기준에서 평가 절하된 페소화로 바꾼 후 이를 동결시킴에 따라 천연 가스의 가격이 2/3로 추락함.
- 비정상적으로 낮은 천연가스의 국내가격으로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기업들은 신규 탐사 및 개발 투자를 꺼리게 되었고, 이러

한 상황에서 2003년 후반에 들어와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자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함.

- 신규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2004년 아르헨티나의 확인 가스 매장량은 2002년에 비해서 35%가 감소하게 됨.
- 이에 더하여 동절기 에너지 부족에 직면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국 칠레로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7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소비에 충당하게 됨.
- 2004년 5월 말 칠레로 공급된 천연 가스량은 당초 정해진 공급량의 47%에 불과하였으며 11백만 입방미터가 부족한 양이었음.
- 특히,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천연가스 부족분을 석유나 석탄 등 더 비싼 연료로 대체하게 되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됨.
- 아르헨티나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는 2008년까지 반복되었으며, 불안정한 가스 공급과 2007년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량 급감(-40%) 등으로 총체적인 전력 위기에 직면하게 된 칠레는 대규모 LNG 터미널 공사에 착수하였고,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칠레 가스 수출은 중단된 상태이며, Metrogas 등 주요 칠레의 천연가스 공급업체는 아르헨티

나 회사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종결하는 등 향후 양국 간 관련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과제〉

□ 향후 발전 부문 개발 계획

- 칠레 정부는 자국의 전력산업이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공급에 종속되는 결과를 탈피하기 위해, 중부 Quintero지역에 대규모 LNG 터미널을 건설(2009년 완공 예정)하여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수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하고 있음.
- LNG 터미널은 대규모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천연가스 파동 전에는 투자가 불투명한 분야였으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방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07년 사업 논의가 시작되었음. British Gas가 지분율 40%, ENAP, ENDESA, METROGAS 등 발전 회사 및 천연가스 관련 회사들이 각각 2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재원은 국제적 은행 컨소시엄으로 이뤄진 투자단이 11억 달러를 제공함.

〈표 III-24〉 주요 발전소 건설계획

사 업 주	프로젝트명	발전용량 (MW)	발전연료	완공시기
Endesa	San Isidro II	400	천연가스/석유	2008
Scotta/Idroenergia/IdroAustral	소수력 발전소 (15개) 건설	65	수 력	2008
Pacific Hydro/SN Power	La Higuera	155	수 력	2008
Pacific Hydro/SN Power	La Confluencia	145	수 력	2009
AES Gener	Nueva Ventanas	242	석 탄	2010
AES Gener	Guacolda III	152	석 탄	2010
SN Power	Pellaifa	75	수 력	2012~2014
SN Power	Maqueo	300	수 력	2012~2014
SN Power	Liquine	125	수 력	2012~2014
Endesa/Colbun	Aysen (4개 발전소)	2,400	수 력	2012~2018
AES Gener	Alto Maipo	500	수 력	2014~2017

자료 : BMI, Chile Infrastructure Report, Q4 2006. 및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Chile Project Pipeline

- 또한, 2005년 5월에 칠레정부는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력요금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법안(Short Law II)을 통과시켰으며,
- 2008년 2월에는 전력 송배전 전압의 10% 감소, 하계 일광절약시간 연장 시행, 고효율 전구의 보급, 공공부문의 5% 이상의 전력 절약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난 비상대책을 발표하는 등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고심 중에 있음.

□ WB, IDB 등 개발은행과의 협조

- 칠레는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 등 개발은행으로부터 전력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왔음. Coquimbo, Maule, Bibio, Araucania, Los Lagos 등의 빈곤 농촌 지역에 지속가능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B로부터 2004년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의 차관을 받기로 하였으며, 동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태양광 및 풍력 터빈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음.
- IDB는 농촌전력개발 사업, SME 전력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 배전망 사업 등에 총 9천 1백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였음.

□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 수력발전 : 전통적으로 칠레는 풍부한 수력자원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을 해 왔으나, 주기적인 가뭄으로 1990년대 천연가스 시설로 일부 대체되었음. 2004년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파동으로 2007~8년 Colbun 발전회사는 Laja River에 70MW의 Quilleco 시설을 건설하였고, Endesa의 경우 Palmucho 수력발전소 운영을 시작하는 등 여러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임.
- 풍력발전 : 2008년 풍력은 전력 생산량의 0.05%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몇 년간 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되고 있음. Wireless Energy Chile는 5MW 풍력발전소를 전국에 도합 세 곳을 운영할 계획이며, Endesa는 10MW 용량의 풍력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임. SN은 2010년 10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46MW 풍력 발

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원자력발전 : Michelle Bachelet 현 정부는 원자력 발전 개발 계획은 없지만,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관련 결정은 보류한 상태임. 하지만 지형적 특성상 지진이 자주 일어나 향후 당분간은 원자력 발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금융업

가. 금융정책

□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금융업 발달

- 칠레는 1973년 이전까지 사회주의정권하에서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을 소유·관리하는 금융제도를 유지하였음.
- 1975년 금융기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정부소유의 20개 은행 중 Banco del Estado de Chile를 제외한 모든 은행을 민영화하였고 민간은행설립을 자유화하는 등 광범위한 금융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 또한, 1997년 은행 일반법 개정예 의해 외국은행의 진출 가능 분야가 증권 및 보험 관련 중개업, 보증 및 팩토링 등으로 대폭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외국은행의 칠레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됨.

□ 금융위기를 계기로 감리감독 강화

- 칠레의 금융시장은 1970년대부터 금리 자유화, 대출업무 자유화, 외채도입 업무 자유화, 은행 민영화 등 금융자유화 및 민영화를 단행함으로써 일찍이 자본시장이 발달하였음.
- 1980년대에 들어서 비정상적인 대출이 증가하고, 실질금리가 상승, 신용 및 환리스크 관리 실패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1984년 결국 금융 위기를 겪게 됨.
- 1984년 금융위기 이후 칠레정부는 은행의 도산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관(SPIF)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등 기존의 금융자유화 노선에 변경을 가함.
- 특히 1989년 10월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

□ 2000년 이후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급성장

- 칠레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함.
- 2001년 자본시장 개혁은 단기성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15%) 폐지, 민간연금기금회사(AFP)에 대한 근로자들의 납입한도 확대, 보험업, 뮤추얼 펀드, 민간연금기금회사(AFP)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03년 2단계 자본시장 개혁은 벤처자본의 활성화, 거래비용의 감소, 기업 관리 기준 강화, 감세를 통한 저축 촉진 등을 목표로 자본시스템의 현대화 및 간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나. 금융기관

- 칠레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민간연금기금회사(AFP), 증권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은행〉

- 칠레 중앙은행은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12월 중앙은행법 개정으로 광범위한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음.
 -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페소화의 가치안정, 재할인율 및 지급준비율 등을 통한 통화신용의 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국환 및 대외지급준비자산의 관리, 국채의 발행 및 상환, 이자지급 및 등록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는 다음 기관들이 있음.
-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y of Banks : SPIF)
 - 증권보험감독원(Superintendency of Securities and Insurance : SVS)
 - 연금감독원(Superintendency of Pension Funds : SAFP)

- 국제금융기관, 외국은행 또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칠레 산업개발공사(CORFO)도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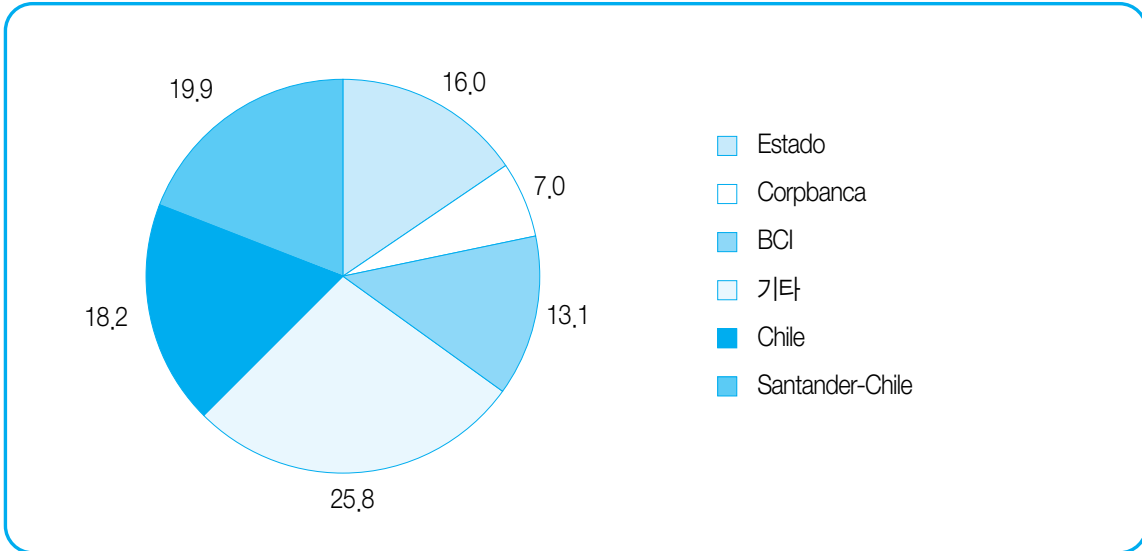
다. 금융시장

(1) 은행

□ 13개의 로컬 은행이 칠레 전체 은행자산의 60%를 차지

- 현재 칠레에는 Banco Santander, Citi bank 등 13개의 외국계 금융기관, Banco de Chile, Corp Banca 등 11개의 국내 상업은행, 국책은행인 Banco del Estado 등 총 25개의 은행이 존재함.
- 내국계 민간은행 중에서는 Banco de Chile가 규모나 영업 면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외국은행인 스페인의 Banco Santander-Chile가 자산규모 및 시장점유율에 있어 최대 은행으로 자리하고 있음.
- 2009년 6월 기준으로 Banco Santander-Chile가 칠레 총 은행자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Banco de Chile가 18.2%를 차지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이밖에 Banco de Estado, Banco de Credito e Inversiones가 각각 칠레 총 은행자산의 16.0%, 13.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I-14〉 칠레 은행자산의 은행별 점유율



자료 : 은행 및 금융회사 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e Instituciones Financieras: SB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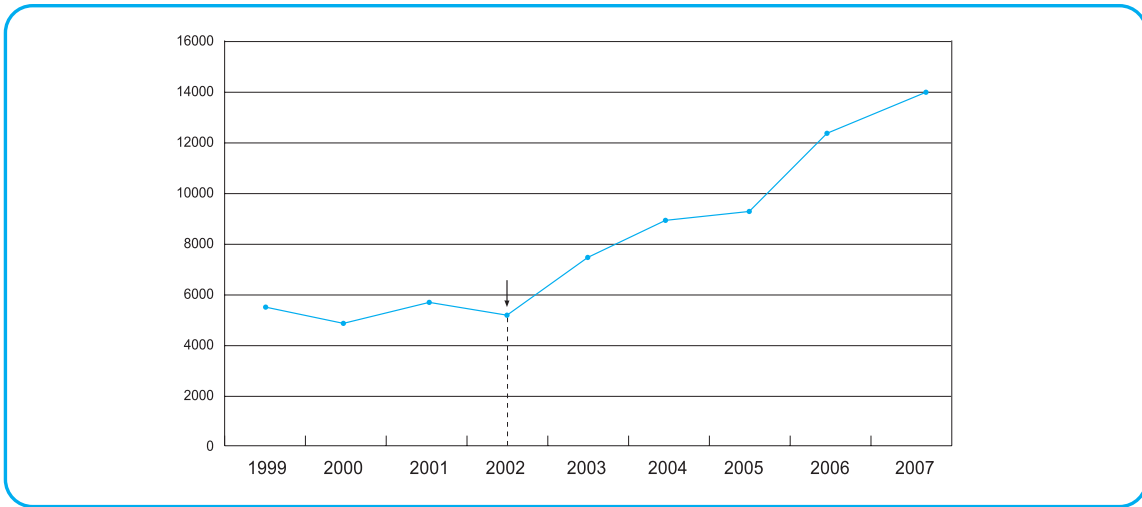
- 과거 칠레금융시장의 은행들은 M&A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음. 현재 선두은행인 Banco Santander-Santiago는 2002년 스페인계 Santander 은행(BSCH)이 Santiago 은행의 정부 지분 35.4%(6억9천만 달러규모), HSBC의 지분 7%를 매입, 총 79%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칠레 최대은행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됨.
- 또한 자산규모 2위인 Banco de Chile도 2002년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칠레은행인 Banco de Chile와 Banco de Edwards가 합병을 통해 칠레 내 거대 은행으로 탈바꿈한 사례임.
- 모든 은행은 은행 및 금융회사 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e Instituciones Financieras: SBIF)의 감독을 받으며, 2007년 말부터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 및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2) 주식시장

□ 2001년 자본시장 개혁과 더불어 주식시장 활성화

- 2001년 민간연금기금회사, 보험회사 등이 투자허용 대상 범위 확대, 단기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등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의 단행은 계기로 2002년부터 칠레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호황을 누리게 됨.
-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은 광업 기업의 호황으로 칠레의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더욱 확대됨.
- 2007년에는 BCS 종합주가지수(General Price Index of Shares)가 2002년 대비 180%까지 상승함. 또한 2002년 498억 달러에 불과했던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액이 2007년에는 2,129억 달러에 달함.
- 칠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식거래소가 있으며, BCS에서 주식거래의 약 80%가 이루어지고 있음.
 - Bolsa de Comercio de Santiago(BCS)
 - Bolsa Electronica(BE)
 - Bolsa de Comercio de Valparaiso(BCV)

<그림 III-15> BCS 종합주가지수(IGPA) 추세(1999~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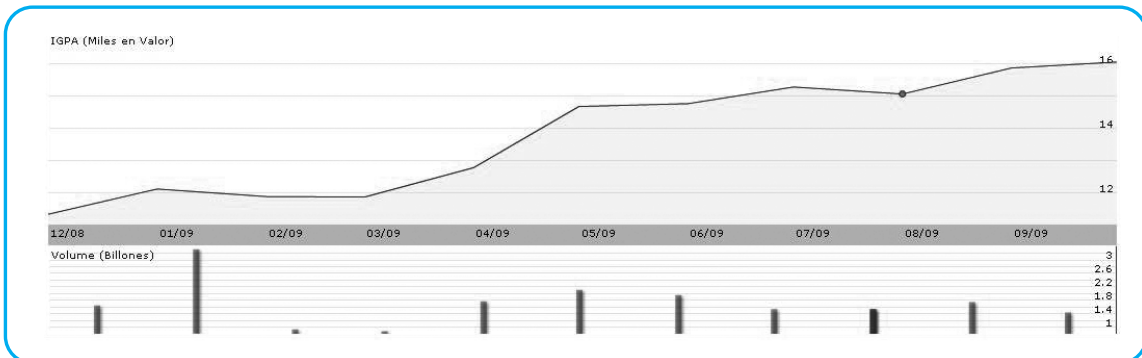


자료 : 칠레중앙은행

□ 2008년 급락장에서 회복세 전환

-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칠레 주식시장은 큰 낙폭을 보이며, 2008년 12월 초 BCS 종합주가지수 종가는 11,324선까지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 2009년 3월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10월 23일 현재 BCS 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최고점 이었던 15,285선 대비 4.8%가량 상승한 16,069로 마감함.

<그림 III-16> 금융위기 이후 BCS 종합주가지수(IGPA) 추세 (2008. 12월~2009. 10월)



자료 : 산티아고증권거래소 IGPA(General Price Index of Shares)

(3) 민간연금기금

□ 연금기금 민영화 및 규제 완화로 민간연금기금 시장 성장 시작

- 1981년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함. 비서구 국가에서는 최초로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pay as you go : PAYG)을 도입, 연금기금 운용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함. 새로운 연금제도 하에서 개인연금구좌(PSA)를 개설하여 매월 최대 60UF²⁰⁾의 한도 내에서 월수입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함.
- PSA에 적립된 기금은 민간연금기금회사(AFP)가 투자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 자본시장 개혁 이후 AFP의 투자대상 범위에 대한 규제완화로 국채, 주식, 정기예금, 회사채, 금융채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짐.

□ 자본시장의 중요한 자금원으로 성장

- 2008년 7월 기준 칠레의 연금펀드시장은 1,085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칠레의 GDP 규모의 반 이상을 넘어서는 큰 규모로 칠레의 자본시장의 자금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금기금이 민영화되었을 당시 12개의 AFP가 있었으나, 운영성과 등에 의한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2008년 현재 Capital, Cuprum, Habitat, Planvital, Provida, Santa Maria의 6개사로 감소함.

20) 폐소화와 물가상승률에 의해 조정되는 화폐단위(Unidades de fomento)

- 현재 칠레의 연금시장에 존재하는 6개의 AFP 중 Provida, Habitat, Capital의 세 개사에 의해 전체 연금시장의 70% 이상이 운용되고 있음.
- 2009년 7월 Provida가 전체 연금시장의 30.9%에 해당하는 334억 달러를 운용하며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음. Habitat, Capital도 각각 24.2%, 22.4%의 비중 있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표 III-25〉 칠레 AFP의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운용규모(백만달러)	시장점유율(%)	
		2008. 7	2007. 7
Capital	24,248	22.4	12.4
Cuprum	20,967	19.3	18.7
Habitat	26,276	24.2	23.7
Planvital	3,512	3.2	3.3
Provida	33,471	30.9	30.7
Santa Maria	0	0	11.1
전 체	108,474	100	100

자료: securities.com

(4) 보험

□ 2008년 금융시장 불안으로 큰 손실 기록

- 동 가격 하락, 내수 위축, 세계적인 신용경색 등으로 칠레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08년 9월 현재까지 1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하였고, 1997년 39개였던 국내 보험사 수는 2008년 30% 감소함.

- 2008년 9월 현재 기준, 칠레의 일반 보험 및 생명보험 부문은 주로 외국계 회사들이 선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네덜란드계 보험 그룹인 ING와, 미국계 MetLife, P&C 보험회사, RSA Chile 등임.
- 2008년 5월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손해 및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상해·손해 보험의 경우 2008년 9월까지 매출액이 전년대비 13.2%상승한 9.1억 달러에 달함.